

구이쯔(鬼子), '동정3부곡(悲憫三部曲)'의 하층민 고난서사 연구

박민호*, 박은혜**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하층민의 욕망과 좌절
 - 1. <비에 젖은 강>의 경우
 - 2. <오전에 조는 소녀>의 경우
 - 3. <와청 하늘의 보리밭>의 경우
 - III. 하층민의 소외와 관계의 균열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정치적 민주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고 후기자본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유입과 확장으로 상업화, 세속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국문단에서 '신상태(新狀態)', '신생대(新生代)', '만생대(晩生代)'로 불리는 작가들의 등장은 비평가들의 주목을 끌었다.¹⁾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시장경제의 격랑이 중국 연해의

* 한국외대 대학원 중어중문과 박사수료

** 한국외대 대학원 중어중문과 박사과정

1) '신상태'라는 개념은 중국의 중요 문예지인 《종산(鐘山)》과 《문예쟁명(文藝爭鳴)》에서 문학비평가 왕간(王干)이 최초로 제기하였다. 1989년 이후 문학인들이 더 이상 소설을 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는 지속적으로 중국 당대 소설의 변화양상에 관심을 두었고, 신 시기 문학이 종결된 후 중국 소설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다고 말한다. 그는 그러한 중국문단의 새로운 가능성을 가리켜 '신상태'라 지칭한다(王干, 《邊緣與曖昧》(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1), 82~83쪽 참조). 한편 '만생대'라는 개념은 천샤오밍(陳曉明)이 <최후의 의식(最後的儀式)>이라는 글에서 제기한 것으로, 처음에 이 개념은 1980년대 후반에 출현한 전위파(先鋒派)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나중에는 '뒤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세계 휘몰아치던 1990년대 중반, 1960년대 전후에 출생한 일군의 작가들은 ‘굴기의 세대(崛起的一代)’로 불리며 「의연하게 선배 작가들이 가꾼 문학의 숲을 통과하여 자신들만의 예술의 길에 섰」²⁾고, 작품의 대중성, 가독성을 중시하면서도 창작의 개성과 세계관, 인간관의 깊이를 구현하려 치열하게 고민했다. 이들은 1980년대 후반 서사와 플롯의 해체를 시도한 선봉소설의 지나치게 회삽한 성격을 지양하고 소설이 지닌 서사적 매력을 구현하려 노력하면서도, 인성과 세계를 향한 전위적인 사유와 텍스트에 대한 창의성을 추구함으로써 상업화되기 시작한 중국 문단에서 현실적 생존과 순문학적 가치를 동시에 모색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출현한 신사실소설이 현실 재현의 전형성과 거대서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과 민간의 생활세계를 중시한 점은 90년대의 ‘굴기의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신사실소설들과 달리 신세대 작가들은 부조리한 세계 안에서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개인이 아니라 부단히 갈등을 일으키고 저항하는 ‘주체’를 구축했다.³⁾ 다시 말해 우리는 신세대 작가의 작품 속에서 세계와 인성이 해체된 이후 그것들을 어떻게 다시 재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방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의 ‘공명(共名)’의 시대가 1990년대 ‘무명(無名)’의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거대서사, 영웅주의, 계몽주의적 성격이 미시서사, 개인주의, 민간서사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에 근거해볼 때, 신세대소설은 전자보다 후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⁴⁾ 신세대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국가나 민족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기껏해야 알레고리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머문다. 따라서 신세대소설의 그러

늦게 도달한 자(遲到者)’, ‘나중에 태어난 세대(晚生代)’라는 의미를 띤 1990년대 소설가들을 지칭하게 되었다. (陳曉明, 〈晚生代與90年代的文學流向〉, 《90年代批評文選》(陳思和、楊揚編),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268쪽) 본고에서는 리제페이(李洁非)가 ‘새로운 세대’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하였고, 이후 우이친(吳義勤), 장권(張鈞) 등 주요 문학연구자 및 평론가를 포함하여 중국과 한국 내 학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된 ‘신세대’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

- 2) 洪治綱, 《中國六十年代出生作家群研究》(南京, 江蘇文藝出版社, 2008), 22쪽
- 3) 신세대 작가들과 신사실소설 작가들 사이의 문학 창작 의식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해서는 洪治綱, 위의 책, 23~24쪽 참고.
- 4) ‘공명’과 ‘무명’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陳思和, 〈共名與無名〉, 《上海文學》1996年第10期를 참고할 것.

한 성격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장권(張鈞)은 '개인화 창작'을 언급한다. 신세대 작가들은 우선 집단보다는 개인의 입장에 서서 실생활에서 경험한 장삼이사를 작품 전체에 배치함으로써, 두드러지게 '민간'의 모티프를 운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대체로 이러한 특징을 지닌 신세대 작가들 중 본고에서 주목하는 작가는 광시에서 활동하는 구이쯔이다. 그의 본명은 라오룬바이(廖潤柏)로 1960년대생인 여느 신세대 작가들보다 다소 이른 1958년에 출생했으며, 동시(東西), 리펑(李馮)과 더불어 '광시삼검객(廣西三劍客)'의 일원으로 일컬어진다.⁵⁾ 그러나 그는 역사 패러디를 주로 운용한 리펑과 달리 자신이 거주하는 광시 현지인의 민간 생활상을 소설 속에 생생히 반영하였고,⁶⁾ 동시와 비교할 때 하층민의 고통스럽고 피폐한 삶을 더 비장하고 강렬하게 묘사했다. 그가 거주하는 광시는 아주 편벽되고 궁핍하며 소수민족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외된', '주변화된' 지역이다. 더구나 작가 자신은 소수민족인 무라오(仫佬)족으로 무라오족 자치구에서 성장했고 가난한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주변 하층민들로부터 많은 소설 창작상의 제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본격적으로 소설을 창작하기 전에 중국 내에 발표된 모든 소설을 일별한 후 대다수 중국 작가들이 하층민의 고난을 다루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 때문에 그러한 제재를 소설에 활용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⁷⁾ 한편 그는 개인화 창작을 작가

5) 광시삼검객이라는 명칭은 1990년대 후반 주샤오루(朱小如)에 의해 처음 사용된 듯하다. 그는 구이쯔, 동시, 리펑을 '검객'으로 명명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광시의 이 세 작가를 검객이라 칭한 이유는 내가 그들의 소설을 읽을 때 보은과 복수의 쾌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칼을 잡지 않은 내 손을 근질근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朱小如, 〈“挑戰”廣西三劍客〉, 《南方文壇》1998年01期, 22쪽. 한편 중국의 저명 문예지의 하나인 《남방문단(南方文壇)》은 1998년 첫 번째 호를 광시삼검객 특집호로 다루었다. 이는 1997년 10월과 12월, 이들 세 작가와 작품들을 대상으로 '중국작가협회 창작연구부(中國作協創研部)', '광시작가협회', '광시문예이론가협회', 《화청(花城)》 문예잡지사, 《남방문단》 문예잡지사, '광시사범대 중문과' 등 6개 단위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와 함께 문단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 두 토론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林文, 〈六單位聯合召開東西、李馮、鬼子作品討論會〉, 《花城》1998年01期和 張軍華, 〈東西、李馮、鬼子作品討論會紀要〉《南方文壇》1998年01期를 참고할 것.

6) 동시, 구이쯔와 달리 리펑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광시의 면모를 소설에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1990년대 후반 광시의 세 작가가 평론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시점에서, 마상우(馬相武)는 《남방문단(南方文壇)》과의 한 인터뷰에서 「구이쯔, 동시의 많은 소설들과 달리 리펑 소설에는 광시의 자연의 향기를 맡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馬相武, 〈造勢當下的南國三劍客〉, 《南方文壇》1998年01期, 14쪽.

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간주하면서도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좌절하는지를 극적인 서사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가능하게 만든다.⁸⁾ 또한 구이쯔 소설 속 인물들은 사회와 생활이 요구하는 대로 온순하게 사고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애쓰는 주체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신세대소설의 주요 특징인 ‘개인화 창작’, ‘민간서사’를 운용함과 동시에, 하층민의 저항과 고난을 두드러지게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⁹⁾

구이쯔는 한국 내 연구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작가이지만 《소설선간(小說選刊)》 우수중편소설상, 《인민문학》 우수중편소설상, 제2회 루쉰문학상 등 중국 내 주요 문학상을 수상한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¹⁰⁾ 중국에는 그의 소설을 다룬 연구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 왕간, 천샤오밍, 홍즈강(洪治綱), 리징쩌(李敬澤) 등 중요 문예연구자, 편집자들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그의 작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왕간은 그의 소설이 ‘귀기(鬼氣)’를 지니며¹¹⁾ 「통속소설의 스토리가 지니는 힘을 순문학 창작 안에 들여왔다」¹²⁾고 평했다. 천샤오밍 또한 구이쯔가 무협소설 창작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출중한 능력」을 지녔다고 평했으며,¹³⁾ 홍즈강은 구이쯔 소설이 민간(民間)과 작가의 서민적 삶의 기억으로부터 유래하는 강렬한 우환의식을 지녔다고 말한다.¹⁴⁾ 구이쯔의

7) 鬼子、姜廣平, 〈鬼子: 直面人民在當下的苦難〉, 《西湖》2007年09期, 86~88쪽.

8) 장권과의 인터뷰에서 구이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자들에게 흡인력 있는 작품을 쓰는 동시에, 최대한 저 개인에 속하는 것들을 표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화 창작이 마땅히 공적인 성격을 띤 글쓰기(公共性的寫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공적인 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러한 담론 안에서 서술자의 인격이나 생명, 심지어는 서술자의 영혼마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집단성을 띤 창작입니다. 진정한 글쓰기는 반드시 개인의 글쓰기여야 하며 작가의 글쓰기여야 합니다.” 張鈞, 《小說的立場—新生代作家訪談錄》(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2), 418~419쪽.

9) 구이쯔에 대한 다음 평가를 참고할 것. “하층민의 고난서사는 구이쯔 창작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로써 구이쯔는 1990년대의 욕망서사를 성공적으로 탈피해냈다.” 李琨、陳勝華, 〈論貴子的底層寫作〉, 《廣西社會科學》2012年第4期, 141쪽.

10) 鬼子、姜廣平, 위의 글, 86쪽.

11) 王干, 〈敘述之外的敘述—評鬼子的小說〉, 《南方百家》1997年06期, 18쪽.

12) 張軍華, 위의 글, 25쪽 왕간의 발언을 참고할 것.

13) 陳曉明, 〈直接現實主義: 廣西三劍客的崛起〉, 《南方文壇》1998年02期, 4쪽.

주요 소설을 《인민문학》에서 최초로 소개한 리징쨈는 사회에서 주동적인 역량을 상실한 동시대 중국 소설들과 달리 그의 소설은 「문학의 사회적 힘을 예시한다」고 말한다.¹⁵⁾ 이처럼 1990년대 후반부터 그의 작품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이래, 중국 내 구이쯔 관련 글은 100여 편 가깝게 발표되었고 국내에는 김경남의 〈구이쯔 소설론〉(2011)이라는 논문이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구이쯔의 출세작이자 루쉰문학상 수상작인 〈비에 젖은 강(被雨淋濕的河)〉(1997)을 포함하는 ‘동정3부곡’(2004년 출간, 〈오전에 조는 소녀(上午打瞌睡的女孩)〉(1999), 〈와칭 하늘의 보리밭(瓦城上空的麥田)〉(2002), 〈비에 젖은 강〉 수록)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중국 내에서 세 작품을 공히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총 다섯 건에 불과하며¹⁶⁾ 구이쯔 전체 창작을 포괄적으로 소개·분석한 김경남의 연구에서도 동정3부곡에 대한 다채로운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¹⁷⁾

본고에서는 구이쯔의 동정3부곡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고 특히 동정3부곡을 관통하는 몇 가지 함의를 ‘고난’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14) 洪治綱, 〈宿命的體恤—鬼子小說論〉, 《南方文壇》1999年04期, 16쪽

15) 李敬澤, 〈鬼子: 通過考驗—評“鬼子悲憫三部曲”〉, 鬼子著, 《瓦城上空的麥田(鬼子悲憫三部曲)》(沈陽, 春風文藝出版社, 2004), 246쪽

16) 동정3부곡 관련 중국 내 연구 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鄭立峰, 〈社會的現代化進程, 情感斷裂無法愈合的空隙—以《鬼子悲憫三部曲》爲例〉, 《玉林師範學院學報》2006年01期; 韓春萍, 〈“苦難主題”與佤族文學的悲劇意識—從鬼子的“悲憫三部曲”談起〉, 《當代文壇》2006年03期; 廖學新, 〈沉重的修辭—“鬼子悲憫三部曲”管錘〉, 《河池學院學報》2007年06期; 石群山, 〈鬼子“悲憫三部曲”的精神生態觀照〉, 《欽州學院學報》2010年06期. 한편 2004년에 출간된 동정3부곡에는 두 편의 평론이 수록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하나는 李敬澤, 〈鬼子: 通過考驗—評“鬼子悲憫三部曲”〉이고 다른 하나는 程文超, 〈鬼子的“鬼”—評“鬼子悲憫三部曲”的敘事〉이다. 程文超의 글은 《當代作家評論》, 2004年第1期에도 수록되어 있다. 아래에서 인용한 程文超의 글은 모두 《當代作家評論》을 출처로 삼았음을 밝힌다.

17) 동정3부곡 중 김경남의 논문에서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룬 작품은 〈비에 젖은 강〉과 〈오전에 조는 소녀〉이다. 이 논문은 〈비에 젖은 강〉을 크게 ‘샤오레이 부자 간의 갈등’과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 사이의 갈등’의 두 가지 갈등구조로 나누어 샤오레이의 고난의 생성 원인을 ‘저항’으로 해석하는 한편 〈오전에 조는 소녀〉의 한루가 처한 고난을 “사막 한 가운데 방향감 없이 헤매는 조난자의 극한적 상황”으로 표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을 견뎌내는 그녀의 의지를 “양분하나 없는 담자락 한 권에 오롯이 자라난 민들레”로 묘사하였다. 김경남, 〈구이쯔 소설론〉, 《중국어문학지》 제35집, 2011.4, 119~123쪽 참조.

살펴보려 한다. 본론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하층민의 욕망과 판타지를 그들이 겪는 고난과 연계시켜 다루려 한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층민의 그러한 욕망과 판타지를 좌절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소외’, ‘관계의 균열’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하층민의 욕망과 좌절

인간에게 욕망은 고단하고 녹녹치 않은 삶을 지속시켜주는 심리적인 지지대이자 원동력이다. 인간은 현실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지경을 추구하고 상상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을 견디고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인간을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리고 욕망에 매몰된 인간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자기 파멸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욕망하는 바, 곧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기 위해 더욱 화려하게 상상된 욕망 대상으로서의 판타지를 추구하기 위해 진력한다. 따라서 욕망하는 인간은 혼란스러운 모순 속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는 욕망을 지속시킬 수도 단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욕망을 지닌다. 가장 대표적인 욕망은 단연 ‘성욕(性慾)’일 것이다. 그 밖에도 우리는 재물, 자아실현, 인간관계, 타인의 인정 또는 명예 등을 욕망한다. 그런데 욕망 대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그 욕망 대상에게 갖는 정서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대상에게 갖는 정서와 다를 것이다. 대개 전자는 후자에 비해 그 대상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이데올로기나 그 밖의 조건들이 욕망 대상을 갖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반드시 추구해야 하고 추구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는 그 자신에게 이미 ‘판타지’가 되어버린 그 욕망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 온갖 수고와 대가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볼 구이쑤의 세 작품은 추구하는 욕망 대상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 하층민을 다룬다. 〈비에 젖은 강〉에 등장하는 청년 샤오레이(曉雷)와 그의 부친 천춘(陳村), 〈오전에 조는 소녀〉의 한루(韓露)와 그의 모친, 그리고 〈와청 하늘의 보리밭〉에 등장하는 후라이(胡來), 리쓰(李四) 등이 바로 그러한 비극적 인물들이

다. 그러나 구이쯔의 욕망 서사는 1990년대 중국 내에서 가장 널리 운용된 '성애(性愛)' 서사와 거리가 멀다. 그가 묘사하는 인간은 '생존'과 연관된 생활세계의 소소한 욕망을 보여주는 하층민이다. 그러한 욕망이 일견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낼 만한 특별하거나 참신한 것들이 아님에도 구이쯔의 서사는 「끊임없이 절정으로 향하게 하는 강력한 추동력」과 「애정이나 성에 기대지 않으면서도 독자들로 하여금 책을 내려놓지 못하도록 하는 흡인력」을 지닌다고 평가된다.¹⁸⁾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 장에서는 동정3부곡의 세 작품을 발표된 시기 순서대로 살펴보려 한다.

1. <비에 젖은 강>의 경우

먼저 1997년에 발표된 <비에 젖은 강>의 경우를 보자. 이웃에 사는 이혼녀 '나'의 시점으로 서술된 이 작품은 주인공 샤오레이의 모친이 남편 천춘 곁에서 유언을 남기며 죽어가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남편에게 더 이상 힘들게 받을 경작하지 말고 근처 소도시(小鎮)에서 공부하는 자녀의 호구를 도시로 옮겨달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마을 도박장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목격한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던 샤오레이는 이들을 사범학교에 진학시키려 한 부친 몰래 돈을 벌기 위해 광저우로 간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충칭에서 온 사내(重慶小子)에게 속아 팔려간 채석장에서는 몇 달 씩이나 임금을 주지 않고 샤오레이를 포함한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는다. 이를 견디다 못해 채석장 양(楊)사장을 때려눕히고 그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 달아난 샤오레이는 다시 만난 충칭 사내를 통해 이번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의류공장에 취직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샤오레이는 노동자를 짐승처럼 여기는 사장의 태도와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굴종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에 분개하며 그곳을 떠난다. 고향에 돌아온 샤오레이는 교사인 부친의 임금이 몇 달 간 체불되었음을 알고 교육국을 고발하라 하지만 부친은 그런 아들의 태도를 나무란다. 교육국이 새로 건물을 짓는데 교사들의 임금이 사용되었음을 알아낸 샤오레이는 모든 교사들에게 편지를 써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시내 모처에 집결하기로 한다. 약속한 그 날 해당 장소는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천춘에 의해 저지당한 샤오레이는 다시 교육국의 비리를 더 캐내기 위해 한 천연가스

18) 程文超, 위의 글, 133쪽.

유전에 위장취업한다. 그러나 그는 그 곳에서 일하던 중 의문의 폭발사고로 병원에 실려온 지 나흘 만에 죽는다. 그는 교사들의 봉급이 교육국장의 먼 친척이 운영하는 천연가스 회사에 투자되었고 자신은 그들의 음해로 사고를 당했으며 그 밖에 그 간 알아낸 비밀은 모두 고향 집 베개 아래 있다고 부친에게 말한다. 부친은 교육국장을 아들의 영안실로 불러내 그를 살해하려 하지만 이전에 그에게 도움을 받은 일을 생각하여 뜻을 접는다. 아들의 시신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친춘은 강도를 만나 구타당하고 겨우 깨어나 그 자리에 아들을 묻는다. 얼마 후 '나'와 주위 사람의 권고로 천연가스 회사를 고발하려던 친춘은 양사장 살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샤오레이를 찾아온 경찰과 마주친 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거둔다.

이러한 줄거리를 통해 우리는 〈비에 젖은 강〉이 우선 샤오레이라는 젊은 하층민 청년의 욕망 서사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욕망은 자신이 처한 불만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로부터 생겨났지만, 그를 더 극단적인 고난에 빠뜨리는 계기이기도 하다. 작중 샤오레이의 욕망은 도박장에서 오고가는 화폐의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도드라지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부친의 바람대로 사범학교를 졸업하면 번듯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교사인 부친과 농촌의 고된 노동으로 병사한 모친, 그리고 저속한 주위환경에 염증을 느낀 그는 고향을 떠나 광저우로 향한다. 돈에 대한 그의 욕망은 자신을 구속하던 농촌 환경과 고지식한 아버지의 훈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 그에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면이 돈에 대한 욕망과 마주쳐 충돌한다. 그것은 바로 '정의' 또는 '도덕률'에 대한 추구이다. 작중 샤오레이의 정의는 노동에 따른 정당한 몫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분배정의'로 나타난다. 즉 그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의 돈을 욕망했던 것이다. 또한 모든 직공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 무릎을 꿇는 상황에서 홀로 무릎을 굽히지 않았던 샤오레이의 태도는 그가 정의, 도덕에 대한 추구 이외에 자존감을 중시함을 말해준다. 그는 노동현장에서 만난 여느 하층민과 다른 기개와 정의감, 자존감을 보여준다. 따라서 샤오레이의 비극을 통해 작가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의 분배정의와 자존감이 통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다. 샤오레이의 정의감과 자존감은 자신의 욕망을 배반하는 방식, 즉 돈을 벌기 는커녕 자본가와 마찰을 일으켜 쫓기거나 추방당하는 방식으로만 관철된다. 그리고

돈에 대한 샤오레이의 욕망은 '폭력'과 '강탈'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충족될 뿐이다. 요컨대 그의 고난은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는 세계의 부조리와 그것에 대항하는 그의 정의감, 자존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샤오레이의 처신을 과연 온전히 '정의'내지는 '도덕'이라 할 수 있을까? 작중 화자가 힐책하듯이, 양사장을 때려죽인 것이나 자기 행위에 대한 자수 여부를 '제비뽑기'와 같은 유희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려고 한 그의 행동을 우리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그가 목숨을 걸고 알아낸 교육국과 천연가스 회사의 비리관계가 부친에 의해 소각되고, 생각을 고친 천춘이 천연가스 회사를 고발하기 위해 집을 나서다 경찰로부터 아들의 살인혐의를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죽는다는 내용은 샤오레이 부자에게 얽힌 비극의 절정을 보여준다. 요컨대 돈을 통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려한 샤오레이의 소박한 욕망이 세상의 부조리와 그의 정의감에 의해 거듭 무산되었다면,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절하는 부조리를 징벌하려던 그의 정의감과 영웅적 욕망은 살인이라는 부정(不正) 행위에 의해 소설 말미에서 비극적인 실패로 귀결된다. 현재보다 나은 삶과 세상을 원했던 샤오레이의 욕망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가치의 충돌로 인해 그들 가족 구성원 전체를 고난과 파멸로 몰아넣었다.

한편 우리는 이 소설 속에서 하층민의 또 다른 욕망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도시' 판타지에 대한 욕망이다. 이는 근대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전지구적 역사성과 보편성을 띠게 되었고,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에서 수많은 하층 농민들이 공유한 판타지라 할 수 있다. 작품 도입부에 등장하는 샤오레이 모친의 유언은 농촌 하층민이 지닌 도시 욕망을 대변한다. 천춘과 샤오레이, 그리고 그의 여동생 샤오위(曉雨)는 그들의 컷가를 맴도는 죽은 아내 혹은 모친의 유언을 떨쳐내지 못한다. 구이썸의 동정3부곡이 '와청3부곡'으로도 불린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세 작품이 공히 '와청'이라는 '상상의' 도시와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작품은 와청을 욕망의 대상인 판타지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장 도입부에서 언급했듯이 그것이 욕망의 대상인 한, 불가피하게 고난과 슬픔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비에 젖은 강〉에서 천춘은 아내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과 아내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전답을 화자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고 샤오레이를 와청의 사범학교에,

샤오위를 와칭의 미용실에 보낸다. 물론 샤오레이는 와칭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돈벌이 기회를 위해 광시를 떠나 광둥으로 향하며, 샤오위는 외지에서 온 돈 많은 사장의 정부(情夫)가 되어 미용실을 떠난다.¹⁹⁾ 그러나 천춘과 샤오레이의 생각이 기반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욕망은 이혼한 후 남편과 아이를 와칭에 남겨두고 홀로 살아가는 화자의 우려를 산다. 그녀는 「나는 인간 세상의 추악함이 거의 모두 변화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도시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는 벌집과 같다. 나도 그 벌집 안에 달콤한 꿀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때로는 벌에 쏘여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²⁰⁾라고 말한다. 이렇듯 화자 '나'는 도시에 대한 농촌 하층민의 욕망을 염려한다. 천춘이나 샤오레이, 샤오위와 같은 순박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농촌 하층민들은 '인간 세상의 추악함'이 모여 있는 도시에서 정의와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으며, 물질이나 돈을 추구하자면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우유부단한 천춘이 안정감을 위해 돈을 포기했고, 샤오레이는 물질과 정의, 자존감을 모두 얻고자 하다가 자신의 삶 자체를 잃었으며, 샤오레이의 여동생 샤오위는 물질과 안전을 위해 자유와 자존감을 버려야 했던 것처럼.

2. 〈오전에 조는 소녀〉의 경우

이 소설은 서술 측면에서 전작과 달리 블랙유머의 요소가 가미되었고 작중 화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여 서사를 이끌어간다는 특징을 지니지만, 주제면에서 하층민의 욕망, 좌절이 담긴 고난서사라는 점이 유사하다. 작중 주인공이자 화자인 한루는 정육점에서 영접결에 더러운 고기를 훔치다 발각된 모친으로 인해 고난의 수렁으로 빠져든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은 다른 여성(매춘부)과 바람이 나가정을 버리고, 두 모녀는 생활고를 못 견뎌 남편을 찾아 도시를 배회한다. 이들은 그가 묵고 있다는 '와칭호텔'의 객실을 하나하나 살피고 호텔 주변에서 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모녀는 끝내 그를 만나지 못한다.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19) 샤오레이, 샤오위 남매의 도시 욕망에 관한 논의는 侯春姿, 〈淺析鬼子小說里的平民命運和底層關懷〉, 《安徽文學》2008年04期, 9쪽 참조.

20) 鬼子, 〈被雨淋濕的河〉, 《瓦城上空的麥田(鬼子悲憫三部曲)》(沈陽, 春風文藝出版社, 2004), 188쪽.

는 그의 말과 돈 이천 위안을 건네는 그의 정부(情婦)를 만날 수 있었을 뿐이다. 남편의 배반에 실망한 한루의 모친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한루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천 위안을 모친의 병원비로 다 써버린다. 그 후로도 한루의 모친은 남편의 행방을 찾도록 한루를 부추기며, 부친의 행방도 찾고 집 안의 생활비도 벌기 위해 한루는 외청호텔의 미용실에서 일한다. 그러나 한루는 곧 부친이 이미 하이난섬에 매춘업소를 차려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마다(馬達)의 꼬임에 넘어가 임신까지 하고 만다. 한루는 사내의 조모로부터 돈을 받아 중절수술을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한루의 모친은 두 번째로 자살을 기도해 결국 사망한다.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한루는 방송국 수위에게 모친의 사망 소식과 자신이 아버지를 기다린다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 부친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방송으로 이 소식을 들은 급우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걷어 그녀에게 건넨다. 그리고 외청을 떠나 광둥에 있던 마다로부터 같이 하이난에 가서 부친을 찾자는 편지를 받고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주저하던 한루는 결국 마다를 만나기 위해 광둥행 기차에 오른다.

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인 한루 모녀에게는 두 가지 욕망의 대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중 하나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며 다른 하나는 그들을 버리고 떠난 가장이다. 한루 모친이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한루 부친이 다니던 공장이 파산하여 한루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가장의 가출은 한루 모녀로 하여금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한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한루의 모친이 지속적으로 부친을 기다리는 일이나 한루가 미용실에 취직한 일은 모두 물질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보다 중요한 점은 두 모녀가 지속적으로 남편/부친의 존재를 갈망하며 그를 찾기 위해 애쓰는 행동이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은 이미 작품 속에서 한루에 의해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그녀는 도박장에서 한루 부친을 만나 아내와 딸의 경제적 어려움을 말해주었다는 라오리(老李)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단지 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²¹⁾ 부친의 부재가 한루 모녀에게 경제적인 고난 이외의 다른 어려움을 의미한다는 것은 비단 한루만의 생각이 아니

21) 鬼子, 〈上午打瞌睡的女孩〉, 위의 책, 17쪽.

다. 왜냐하면 한루의 부친이 정부를 시켜 돈 이천 위안을 그녀들에게 전달했을 때, 한루의 모친은 한 동안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어 안도하기는커녕 도리어 이튿날 자진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돈 이천 위안이 주는 행복감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남편의 말이 주는 충격이 훨씬 컸던 것이다. 그들 모녀에게 남편/부친의 부재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심리적 어려움으로 더 크게 다가왔다.²²⁾ 그녀들이 남편/부친을 욕망하는 이유는 안정되고 결핍이 없는 가정에 대한 욕망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남편/부친을 어떻게 설득할지, 그의 귀환이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그의 귀환이 안정적 가정에 대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지에 대해 그녀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은 남편/부친을 일종의 '판타지'로 설정한다.

그러나 남편/부친의 판타지를 추구하는 방식과 그러한 추구가 필연적으로 가져다 주는 고난을 처리함에 있어서 두 모녀는 큰 차이가 보인다. 먼저 한루의 모친의 경우를 보자. 「자신을 버리고 자기 존엄성과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을 방기하며, 마치 산송장처럼 생활한다」²³⁾는 말은 남편 가출 후의 한루 모친의 태도를 적절하게 표현한다. 특히 그녀의 남편이 한 매춘부와 외청호텔에 있다는 말을 들은 그녀는 늦은 밤 한루와 호텔에 가서 딸을 어깨에 태워 객실 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려 한다. 그녀는 부친을 숨어 기다리는 일로 지친 한루가 오전 수업시간에 늘 졸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리고 사건의 변화에 쉽게 일희일비하며 거듭 자살을 시도한다. 그러한 모친의 행동을 서술하는 한루의 목소리에는 주로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짙게 배어나오면서도, 다소간의 조소와 짜증이 섞여있다.

반면 한루는 모친과 달리 어떠한 고난과 비극에도 의연하고 사려 깊게 처신한다. 임신중절이라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입고 모친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겪고도 한루는 자신의 삶을 끝까지 견디려 애쓴다. 모친과 마찬가지로 부친에 대한 맹목적인 판타지적 욕망을 지녔지만, 한루는 부친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희망으로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강한 정신력을 보여준다.

22) 이와 유사한 관점에 대해서는 韓春萍의 주장을 참조할 것. “이 소설 속에서 부친에 대한 모녀의 집착은 물질 때문만이 아니다. 바로 부친이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이기 때문이다.” 韓春萍, 〈苦難主題與佻族文學的悲劇意識—從鬼子的“悲憫三部曲”談起〉, 《當代文壇》2006年03期, 92쪽.

23) 梁哈昱, 〈苦難中的人性異化—淺析鬼子小說〈上午打瞌睡的女孩〉〉, 《桂林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2012年1月, 68쪽.

위화(余華)의 《살아간다는 것(活着)》에 등장하는 주인공 푸구이(福貴)와도 유사한 한루와 같은 인물을 통해 작가는 소소한 욕망—그것이 설령 판타지일지언정—을 좇으며 고된 생을 이어가는 못 하층민의 질긴 생명력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⁴⁾

3. <와칭 하늘의 보리밭>의 경우

2002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동정3부곡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가장 완숙하고 다채로운 서사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작품이다. 위의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와칭 하늘의 보리밭>은 1인칭 관찰자 '나의 시점으로 인물과 사건이 묘사되고 전개되지만, 화자의 사건 개입 정도로 볼 때 <비에 젖은 강>보다는 <오전에 조는 소녀>와 훨씬 유사하다. 화자인 후라이칭(胡來城)은 부친 후라이와 함께 와칭이라는 도시에서 쓰레기를 주워 삶을 유지하는 도시 하층계급의 소년이다. 부친을 따라 도시에 오기 전 그의 모친은 폐품을 팔아 부자가 된 어떤 사내를 좇아 집을 떠났다. 이들이 와칭에 사는 자녀들을 찾아 도시로 올라온 리쓰(李四) 노인을 알게 되면서 사건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리쓰는 자신의 예순 번째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 큰 딸과 두 아들을 차례대로 방문하는데, 자신이 와칭에 온 이유를 자녀들이 알아채지 못하자 분통을 터뜨린다. 그런 리쓰를 와칭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후라이는 리쓰의 이야기를 듣고 리쓰와 그의 자녀들을 찾아가다 교통사고로 즉사한다. 리쓰는 후라이의 시신을 화장한 후 납골상자와 자신의 신분증을 자신의 첫째 딸 리샹(李香)의 집 앞에 두어 자신이 죽은 것처럼 가장한다. 리쓰는 똑똑한 자녀들이 그것을 자신의 장난으로 금세 알아차리고, 그런 장난을 벌인 까닭도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녀들은 리쓰가 진짜 사망했다고 여기고 장사를 치르러 고향에 내려간다. 그런데 이 일에 화병을 얻은 리쓰의 아내도 곧 사망하면서 사건이 확대된다. 자녀들은 이제 아무도 살지 않게 된 고향집을 팔고 자신들의 무관심으로 세상을 떠난 양친을 깊이 추모한다. 화자와 함께 리샹의 집에

24) 한루라는 인물에 대해 작가는 “현재적 고난 심처에 내재된 들끓과도 같은 생명에 대한 서술”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김경남, <구이쯔 소설론>, 《중국어문학지》 제35집, 2011.4, 123쪽 재인용.

간 리쓰는 뜻밖에 자녀들이 모두 장례를 치르러 고향에 갔다는 이야기를 이웃에게 듣고 황당해한다. 화자는 리쓰를 재촉하여 그의 고향집에 가보지만 집은 이미 모두 헐려 있었다. 화자는 고향에 남아있으려는 리쓰를 설득하여 이미 도시로 돌아간 자녀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리쓰는 자초지정이 적힌 편지만을 자녀들에게 보낸다. 그런데 발신자를 찾아온 자녀들은 초라한 몰골의 리쓰를 자신의 부친으로 알아보지 못한다. 신원을 확인하러 리쓰의 자녀와 함께 온 경찰에게 리쓰가 후라이의 신분증을 내밀자 리쓰의 자녀들은 부친을 사칭하는 녀마노인이라 오인하고 욕한다. 리쓰는 자녀들이 먼저 자신을 알아봐주기를 원해 노상에서 자녀들과 우연히 마주쳐도 얼굴만 들이밀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화자가 직접 나서 리쓰의 자녀들에게 진상을 알려주려 하지만 오히려 폭행만 당한다. 이에 화가 난 화자는 리쓰의 일을 돕지 않기로 결정하고 집 나간 모친을 찾아 떠난다. 결국 자녀를 법원에 고소하려던 리쓰는 끝까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녀의 뺨을 갈기고 그 자리를 뜨다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후라이청은 신문에 난 리쓰 관련 기사를 보고 다시 와청에 돌아와, 화장한 그의 시신을 부친의 뺨가루가 묻힌 리쓰의 고향 무덤가 옆에 매장한다.

이 작품에 나타난 하층민의 욕망은 두 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먼저 위에서도 언급된 도시에 대한 욕망이다. 이 소설에서 사건이 주로 발생하는 공간은 와청이라는 도시이다. 후라이와 리쓰는 모두 자녀를 와청의 거주민으로 만드는 것을 필생의 소망으로 삼는다. 후라이는 와청에 오기 전 자신의 아들인 화자의 이름을 홍이(紅一)에서 라이청으로 바꾸는데, 여기에는 도시에 대한 후라이의 욕망이 노골적이고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 또한 리쓰 노인의 세 자녀, 리상, 리와(李瓦), 리청(李城)의 이름에서도 그와 같은 도시 판타지는 두드러지게 표출된다. 후라이에게 있어 도시는 아내의 부재상태를 야기한 가난을 해결해 줄 재화의 집적소였으며, 궁벽한 향촌에서 자식을 모두 도회지로 내보낸 리쓰에게 3남매의 부와 성공은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리쓰는 자녀 하나를 와청에 보낼 때마다 와청 성벽에 올라 '보리밭'과도 같던 자식들을 모두 도시인으로 만들겠노라 다짐했고 마침내 마을에서 유일하게 이를 달성했다. 이와 같은 작품 모티프에는 '근대'라는 역사적 단계 속에서 일어난 비극이 표현되어 있으며,²⁵⁾ 이 비극은 도시를 욕망하는 향촌 하층민들의 판타지에 의해

25) 胡群慧、鬼子, 〈鬼子訪談〉, 《小說評論》2006年03期, 31쪽 참조.

초래된 것이다. 작중 화자는 리쓰 노인이 겪는 고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도시'와 '도시인'에 대한 부정적 정념을 숨기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부친이 한 말을 인용하며 수많은 세상의 이치가 도시인들에게 내버려져 쓰레기더미가 되었다고 말한다.²⁶⁾

한편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하층민의 두 번째 욕망은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망이다. 작중 리쓰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욕망은 후라이와 그를 죽음으로 빠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가 자신의 예순 번째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고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직접 찾아간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의 작품 줄거리를 통해 알 수 있듯, 문제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일을 알리기 위해 그가 취한 황당한 방식이다. 또 그는 자신이 아버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을 것임에도 굳이 자녀들이 먼저 자신을 알아주기만을 기다리다가 죽음을 자초한다. 물론 그의 부친을 알아보지 못한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지 않지만, 자신의 정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내려는 시도 없이도 자녀들이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해주리라는 생각은 단지 착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작중 화자에 눈에 비친 주인공 리쓰의 언행은 기본적으로 연민의 감정이 녹아있음에도 때때로 답답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오전에 조는 소녀〉에서 한투의 눈에 비친 모친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한투의 모친에게 그녀의 남편과 그의 귀환이 가져다 줄 안정된 가정이 욕망의 대상이었듯, 도시에서 성공한 자녀의 인정은 리쓰에게 궁핍한 촌로의 유일한 정신적 지지대이자 자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Ⅲ. 하층민의 소외와 관계의 균열

본장에서는 동정3부곡의 등장인물들의 고난이 소외와 인간관계의 균열 등의 원인에서 비롯되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이쯔 소설의 특징 중 하나는 작중 화자인 1인칭 관찰자가 사건의 당사자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인물과 사건 전체를

26) 鬼子, 〈瓦城上空的麥田〉, 《瓦城上空的麥田(鬼子悲憫三部曲)》(沈陽, 春風文藝出版社, 2004), 137쪽.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진단, 평가하는 전지적 주체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이 전지적 주체는 동정, 설득, 격려 등을 통해 자기 주변의 수난당하는 하층민을 돕거나 그들이 특정 욕망에 사로잡혀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언행을 보일 때 조연자의 입장에서 우려를 표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의 당사자인 화자는 등장인물이 겪는 고난을 주로 세계의 부조리와 불가피한 숙명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고 그들을 동정적으로 묘사한다. 다시 말해 등장인물들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욕망을 화자는 개인의 그릇된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보다 역사적이고 보편적이며 구조적인 성격을 띤 불가피한 것으로 봄으로써 수난당하는 하층민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춘이나 리쓰가지니고 있던 도시 판타지에 대한 욕망은 그들 내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근대라는 특정 역사적 단계에서 생겨난 향촌 하층민의 보편적인 욕망이었다. 구이쓰가 작품 속에 설정한 세계는 인간을 자신의 노동이나 타인으로부터 소외시키며,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물질과 배금주의가 대체하는 세계다.

먼저 샤오레이의 경우를 보면, 그와 그의 부친을 찾아온 비극의 단초가 자본가의 착취와 노동소외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가 채석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보며 독자들은 노동자에 대한 양사장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처우에 분노를 금할 수 없게 된다. 양사장에게 있어 샤오레이를 포함한 노동자들은 신원이나 출신 등을 확인하거나 많은 말을 섞을 필요 없는 그저 '일하는 소'에 불과했다. 더구나 처음 두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샤오레이는 첫 번째 달 임금은 양사장이 그를 사들이는데 쓴 돈으로 충당되었고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임금을 받을 수 없」으며 「네 번째 달이 되어야 두 번째 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다섯 번째 달이 되어야 세 번째 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노동자들에게 전해 듣고 놀란다.²⁷⁾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황당무계한 양사장의 '관례'에 노동자들이 이의 없이 순종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영원히 두 달 치 임금을 받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그 두 달 치 임금을 양사장에게 고스란히 헌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채석장의 노동자들은 처음 석 달치 노동으로부터 철저히 유리되고 소외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 사이의 관계는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평생선을 긋게 된다. 더구나 노동자들은 샤오

27) 위의 책, 194쪽.

레이가 미리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곳을 떠날 경우 한 달 치 월급을 양사장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아무도 그 사실을 샤오레이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이는 부당하고 왜곡된 현실이 인간을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동류의 인간들로부터도 소외시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대관계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점을 아울러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 소외의 현상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샤오레이가 두 번째로 취직한 의류공장에서도 반복된다. 이 공장에서 사장은 납품일자를 맞추기 위해 허구한 날 노동자들에게 야근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밥을 먹을 시간도 따로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의류공장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사장에 의해 자행된 인간에 대한 탈인격화 또는 대상화인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손상을 가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인성으로부터 소외시키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셔츠를 찾기 위해 한 임신부 노동자를 기둥에 묶어 바지를 끌어내리고, 이에 대항하는 샤오레이로 인해 화가 나 모든 노동자들을 무릎 꿇리는 사장의 처신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기는커녕, 인간으로부터 존엄과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로 비쳐진다. 이와 같은 부조리한 현실에서 샤오레이가 자신의 노동에 따른 대가를 취하고 영원한 소외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취한 거의 유일하고 불가피한 방식은 '폭력'이었는데, 이는 돈과 도시를 욕망했던 샤오레이를 도주자, 유랑자로 전락시키고 작품 말미에 천춘의 비극적 죽음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오전에 조는 소녀〉 역시 비정한 자본가에 의해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하는 한루의 부모를 통해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남편의 공장이 문을 닫을지 모르니 자신을 퇴직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달라는 한루 모친의 뇌물과 간곡한 부탁에도 그녀는 남편보다 먼저 퇴직되고, 뒤이어 그녀의 남편 직장도 파산된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균열이 한층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다. 한루 모친의 정육 절도 미수 사건이 남편의 기출을 야기했다 하더라도, 한루의 부친은 본디 매춘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이는 한루 부친의 성적 욕망이 위에서 살펴본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욕망과 서로 상충되며, 한루 모녀와 부친과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한루 모녀가 자신을 찾아오자 정부를 시켜 이천 위안을 건네는 한루 부친의 행위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균열을 안고 있는 가족관계를 물질로 적당히

붕합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의 부조리를 들여다볼 수 있다. 더욱이 그와 같은 부조리가 야기한 한루 모녀와 부친 사이의 균열은 한루와 그녀의 모친 사이의 균열로 번진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남편의 가출을 정신적으로 감당해내지 못한 한루의 모친은 친딸의 학업이나 건강은 전혀 돌보지 않고 그녀로 하여금 부친의 종적에만 매달리게 만드는데, 이는 자신의 생을 깊어지기 버거워 주변인의 고난을 돌아보지 못하는 개인의 히스테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면은 〈와청 하늘의 보리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부친보다 어렵도 한참이나 어렸고 얼굴도 예뻐던」²⁸⁾ 후라이칭의 모친이 향촌의 궁핍한 가정을 뒤로한 채 돈 많은 사내에게 이끌려 미칭(米城)이라는 도시로 떠남으로써 남은 후라이칭 부자는 인간관계의 균열을 경험한다. 그러나 한루의 모친과 달리 후라이칭의 부친 후라이는 아내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는 가정의 균열과 결손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아내의 귀환을 갈망하기보다는 그 균열과 결손의 근본 원인으로 간주한 '돈'을 벌고자 한다. 순진하게도 후라이는 자신의 아내를 데려간 사내처럼 도시에 들어가면 쓰레기를 팔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그와 그의 아들들 도시사회에서 소외된 최하층 빈민으로 전락시킨다. 「나는 차라리 시골이 좋았다. 와청은 다른 이들의 와청이지 나의 와청이 아니었다 와청은 다른 아이들만의 놀이터였다. 그 놀이터에 나는 들어갈 수 없었다. 나는 먼발치에 서서 명청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²⁹⁾라는 후라이칭의 말은 도시사회에서 소외된 그들의 처지를 잘 말해준다.

자녀를 만나기 위해 도시에 올라온 리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실 작품 속에서 리쓰의 자녀들이 리쓰와 그의 아내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정성스럽고 깃듯하다. 그리고 부친에 뒤이어 모친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들은 깊은 마음으로 애도를 표하고 부모의 영정을 크게 인화하여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둔다. 그들은 진정 자신들을 성공적으로 뒷바라지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사태가 흘러가지 않음으로써 리쓰는 자녀들의 존경받는 부친으로 귀환하기는커녕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은 쓰레기와 같은 인간으로 추락했다. 그는 사회 전체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애

28) 鬼子, 〈瓦城上空的麥田〉, 위의 책, 67쪽.

29) 위의 책, 71쪽.

지중지 뒷바라지하여 도시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된 자녀들에게도 소외되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도시의 비정함을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진단할 만한 지각을 지니지 못했다. 자녀들이 쓰레기장과 같은 곳에서 생활하며 신분증조차도 없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는 '그들이 먼저 자기를 알아보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죽은 후라이의 '신분증'을 자녀들에게 제시했을 때, 그는 '신분'증이야말로 냉혹한 도시 사회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증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이후로도 와칭에서 여러 차례 자녀들과 마주치지만 그의 자존심은 끝까지 그러한 시도를 불허한다. 화자의 말대로 리쓰는 어찌서 자녀들이 자신을 쉬이 알아보지 못했는지를 포함해서, 「와칭의 많은 일들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다.³⁰⁾ 효성어린 리쓰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부친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친을 가장한 사기꾼이라 매도한 것은, 도시사회의 황당하고 아이러니한 색채를 짙게 드러내려 한 작가의 의도를 보여준다 하겠다. 결국 리쓰는 후라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도시 와칭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두 향촌 하층민의 순박함은 이렇듯 돈과 도시가 야기한 두 가정의 균열을 끝내 봉합하지 못하고 끝내 짓밟히고 만 것이다.

IV. 나오는 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 작품 속에서 드러난 하층민들의 고난은 부조리한 사회에서 그들의 소박한 욕망이 충족될 수 없다는 점과, 소외와 인간관계의 균열—특히 전통적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 가족 관계의 균열—로 인해 야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면에서 개인의 무지나 실책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동시에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세 작품에 등장한 인물들의 비극은 일종의 알레고리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유념해야

30) 위의 책, 138쪽

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중국의 도시개혁³¹⁾은 자본주의적 근대화와 도시화를 심화시켰고, 도시와 농촌, 도시 상류층과 빈민 사이에 눈에 띄는 경제적 격차를 일으켰으며, 이로써 향촌과 도시 하층민의 소외 현상은 나날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향촌민들의 도시 판타지가 출현하였고, 더불어 인간 사이의 정서적, 심리적 관계가 금전과 물질로 대체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즉 구이쯔는 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화자의 시선을 통해 오늘날 중국에서 사회적으로 주변화되고 배제된 하층민들의 인물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해냈다고 볼 수 있다.

작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소수민족 하층민 출신이었던 까닭에 구이쯔의 소설 속에 나타난 하층민의 형상은 보다 뾰족하고 뚜렷한 고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지식인이나 작가로서 지닐 수 있는 엘리트 의식을 지양하고 하층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양태에 눈과 귀를 기울이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³²⁾ 그러나 그의 글을 통해 재현된 하층민 사회의 모습은 ‘영도(零度)의 글쓰기’와 같은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하층민들의 고난, 좌절, 비극은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화자에 의해서 풍부한 연민과 이해, 따뜻한 관심에서 우러나오는 걱정 등을 통해 표현되며, 이로써 그들을 대상화, 물화하는 주변 세계를 더더욱 어둡고 냉혹한 것으로 대비되도록 만드는 효과를 자아낸다. 이러한 구이쯔의 창작 특징은 한편으로는 지식인의 영웅의식을 지양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가치와 도덕의 가치를 해체했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문단의 상황에 대해 재구축의 성격을 띤 새로운 경향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31) 마이스너(M. Meisner)에 따르면 도시개혁은 다음 세 가지 층위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기업의 수익성이라는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원칙’, 둘째, ‘노동시장을 보편화’, 셋째, 핵심 공산품 이외의 나머지 공산품의 가격을 정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유통하도록 한 ‘가격개혁’이 그것이다.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2》(서울, 이산, 2004), 659~660쪽. 한편 왕후이는 농촌개혁이 시작된 1978년부터 1985년까지 도농 수입격차가 줄어들다가 도시개혁이 단행된 1985년부터 격차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효율성을 최고 가치로 삼는 이러한 실용주의가 새로운 사회적 불평 등의 조건을 낳았고, 또한 정치적 민주화를 막는 장애 요소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 왕후이 지음, 김택규 옮김, 《죽은 불 다시 살아나》(서울, 삼인, 2002), 95~96쪽.

32) 李琨、陳勝華, 〈論鬼子的底層寫作〉, 《廣西社會科學》, 2012年第4期, 141쪽.

【參考文獻】

- 鬼子,《瓦城上空的麥田(鬼子悲憫三部曲)》,沈陽,春風文藝出版社,2004.
- 陳思和,〈共名與无名〉,《上海文學》1996年第10期.
- 王干,〈敘述之外的敘述—評鬼子的小說〉,《南方百家》1997年06期.
- 朱小如,〈挑戰“廣西三劍客”〉,《南方文壇》1998年01期.
- 林文,〈六單位聯合召開東西、李馮、鬼子作品討論會〉,《花城》1998年01期.
- 張軍華,〈東西、李馮、鬼子作品討論會紀要〉,《南方文壇》1998年01期.
- 馬相武,〈造勢當下的南國三劍客〉,《南方文壇》1998年01期.
- 陳曉明,〈直接現實主義:廣西三劍客的崛起〉,《南方文壇》1998年02期.
- 洪治綱,〈宿命的體恤—鬼子小說論〉,《南方文壇》1999年04期.
- 王干,《邊緣與曖昧》,昆明,雲南人民出版社,2001.
- 李敬澤,〈鬼子:通過考驗—評“鬼子悲憫三部曲”〉,《瓦城上空的麥田(鬼子悲憫三部曲)》,沈陽,春風文藝出版社,2004.
- 程文超,〈鬼子的‘鬼’—評“鬼子悲憫三部曲”的敘事〉,《當代作家評論》,2004年第1期.
- 鄭立峰,〈社會的現代化進程,情感斷裂無法愈合的空隙—以《鬼子悲憫三部曲》為例〉,《玉林師範學院學報》2006年01期.
- 胡群慧、鬼子,〈鬼子訪談〉,《小說評論》,2006年03期.
- 韓春萍,〈“苦難主題”與佤族文學的悲劇意識—從鬼子的“悲憫三部曲”談起〉,《當代文壇》2006年03期.
- 鬼子、姜廣平,〈鬼子:直面人民在當下的苦難〉,《西湖》2007年09期.
- 廖學新,〈沉重的修辭—“鬼子悲憫三部曲”管錐〉,《河池學院學報》2007年06期.
- 侯春姿,〈淺析鬼子小說里的平民命運和底層關懷〉,《安徽文學》2008年04期.
- 石群山,〈鬼子“悲憫三部曲”的精神生態觀照〉,《欽州學院學報》2010年06期.
- 梁哈昱,〈苦難中的人性異化—淺析鬼子小說〈上午打瞌睡的女孩〉〉,《桂林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2012年1月.
- 李琨、陳勝華,〈論貴子的底層寫作〉,《廣西社會科學》2012年第4期.
- 陳思和、楊揚編,《90年代批評文選》,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2001.
- 張鈞,《小說的立場—新生代作家訪談錄》,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2002.
- 洪治綱,《中國六十年代出生作家群研究》,南京,江蘇文藝出版社,2008.
- 왕후이 지음, 김택규 옮김,《죽은 불 다시 살아나》,서울,삼인,2002.
-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2》,서울,이산,2004.
- 김경남,〈구이쯔 소설론〉,《중국어문학지》제35집,2011.4.

【中文提要】

本論文的研究對象是新生代小說家‘鬼子’的三部中篇小說—‘悲憫三部曲’。他的‘悲憫三部曲’包括《被雨淋濕的河》、《上午打瞌睡的女孩》以及《瓦城上空的麥田》。鬼子作為廣西出生的小數民族作家，從小就目睹過許多底層人民的貧窮和苦難。他通過自己的經驗，在小說里主要描寫了中國的底層人民的艱難生活和悲劇。特別是被人稱為他的代表作的‘悲憫三部曲’里面，這種創作特征最為明顯。悲憫三部曲的主要人物都因自己的‘小小的欲望’而把自己墜落於挫折和苦難的境界。他們追求的對象是‘錢’、‘城市’、安樂的‘家庭’、‘自尊心’、‘他人的承認’等。但是這種苦難的來源不只是他們自己的欲望，而是中國社會不合理、不道德的現狀。他們在社會里經常面臨異化，經歷人際關係的破裂。不過他們不斷地對自己所處的情況進行抵抗，因此他們的形象帶有濃厚的悲劇色彩。作家以這些人物的塑造積極揭示當今中國社會的陰暗面，重建以往流失的人文精神的价值。

【主題語】

鬼子, 新生代, 悲憫三部曲, 欲望, 異化, 悲劇

투고일: 2013. 1. 15 / 심사일: 2013. 1. 20~2. 5 / 게재확정일: 2013. 2. 10